

그래프로 알아보는 난청의 정도



정상	정상
경도난청	말 소리의 일부를 잘 못 들 수 있는 정도이며, 보청기 착용이 부분적으로 필요함.
중도난청	보통대화 수준의 말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단계로 보청기 착용이 적합한 경우이며 보청기 착용시 효과가 높음. 난청이 심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 줌.
중고도난청	보통대화 수준의 말 소리를 잘 못 들으며 큰소리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로 TV볼륨이 커지게 됨을 최대한 방지해 줌.
고도난청	귓전의 큰소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으나 거의 대화가 힘든 상태로 난청 뿐 아니라 어음인지도 많이 손상됨. 어음분별력이 낮아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어음의 재활동도 필요함.
심도난청	말 소리 및 그 외의 소리를 못 듣는 상태로 이미 어음인지도 많이 손상되어 보청기 착용을 해도 많은 효과를 보기가 힘들.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꾸준히 어음의 재활동이 필요함.



당일 수술 및 퇴원이 가능합니다. (낮병동 입원)

진료안내

- 귀질환** : 난청, 이명(귀울림), 이개 및 외이도 질환, 어지러움, 보청기, 안면마비, 급만성 중이염
- 코질환** : 코골이, 코막힘 및 코감기, 축농증, 물혹, 비중격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및 만성비염
- 목질환** : 목감기 및 몸살감기, 편도선염, 후두염, 후두암, 침샘염, 구내염, 목이물감, 천목소리
- 소아ENT** : 소아중이염, 소아비염, 소아축농증, 소아코골이, 소아난청
- 미용성형** : 보톡스, 필러, 피어싱

- 코골이클리닉
- 영양치료
- 보청기클리닉
- 예방접종

진료시간 (수술예약)

- 평 일 : 오전 9시15분~오후 6시30분
- 토 요 일 : 오전 9시15분~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12시45분~오후 2시
- 공 휴 일 : 오전 9시15분~오후12시30분
- 일 요 일 : 휴 진



허준 이비인후과 상담문의: 781-6226(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2로 20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2층

새로운 세상이 들립니다
노인성 난청

www.hurjunent.co.kr

-보호자와 환자를 위한 안내서-

“허준이비인후과”에서는 가벼운 감기에서 수술까지 귀, 코, 목의 모든 것



노인성 난청이란?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방치할수록 증세가 계속 나빠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40~50대에는 주로 고음만 안 들려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이 갈수록 대화에 불편을 느껴 소위(가는 귀 먹은)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의 성인 4% 가량은 청각장애가 있으며 65~75세 사이의 성인 중에는 30~35%, 75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난청을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바로 난청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노인성 난청의 경우 말소리는 들리나 그 뜻이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때부터 난청은 사회와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정서적인 격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성 난청이 예상되면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은 후 지속적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 자가진단 테스트

- <스>, <츠> 같은 고음의 소리들을 듣는 것이 어렵다.
- <발>이나 <달>처럼 비슷한 말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 여자 목소리보다 남자 목소리가 알아듣기 더 쉽다.
- 특정한 소리들이 생가시게 들리기도 하고 너무 크게 들리기도 한다.
- 여자나 어린아이의 말을 더 못 알아듣는다.
-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이 있다.
-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거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 식당이나 모임 등 특히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의 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결 과 | 이와 같은 증상은 노인성 난청의 주요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 중 한 문항이라도 해당 될 경우 귀 전문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하나?



노인성 난청에 대처하는 것으로는 크게

- (1) 청력관리
- (2) 청각재활
- (3) 동반되는 문제 해결 등으로 볼 수 있다.

*1단계 : 청력관리

노인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청력이 떨어진 정도를 잘 못 느낍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떨어진 것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주위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청력이 나빠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청력이 나빠질수록 노인성 난청을 겪는 당사자도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인성 난청을 대처하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력관리(Hearing Health care)이며,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의 <귀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청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단계 : 청각재활

노인성 난청이 발생했을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보청기 착용의 경우 노화로 인한 난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선진국의 경우 보청기가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노인성 난청이 있지만 보청기나 청각 재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그냥 이대로 살자는 자조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보청기 착용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1999년 미국의 전국노인협회에서 50세 이상 2,300여명의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난청의 결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그들의 삶의 질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으며 50% 이상이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스스로에 대한 감정도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청기를 하는 자신보다 가족들이 더욱더 보청기 사용에 대해 개선된 사실을 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고르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과 검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확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보청기를 구입 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보청기 착용에 실패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청기 이외에 가능한 청각재활로는 <골도보청기(BAHA)>와 <인공 와우 이식술>있습니다. BAHA는 일반 보청기에 적용하지 못하는 중고도 난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골도 보청기이며, 인공와우 이식술은 고도의 난청에서 보청기로 소리 구별 능력이 50%를 넘지 못할 때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그 수술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의 의학 발전 속도로 보아 소리를 찾을 수 있는 청각 재활방법은 더욱 눈부신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재활과 보청기 착용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 동반되는 문제 해결

청력관리를 위해 그 다음 파악해야 할 것이 난청과 함께 동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며, 노인성 난청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것이 이명과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난청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명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명과 어지럼증은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